



보도 일시	2023. 3. 22.(수) 10:00	배포 일시	2023. 3. 22.(수) 10:00
담당 부서	국립경주박물관 교육문화교류과	책임자	과장 한승철 (054-740-7540)
		담당자	주무관 이지은 (054-740-7627)

클래식을 만나다, 박물관의 바로크 음악전

- 국립경주박물관 3월 문화가 있는 날 문화행사 -

- ☐ 공연 명: 클래식을 만나다: 박물관의 바로크 음악전
- ☐ 공연일시: 2023. 3. 29.(수) 18:00
- ☐ 공연장소: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 2층
- ☐ 공연내용: 신라 향가 낭독 및 몬테베르디, 바흐 및 헨델의 바로크 음악 연주
- ☐ 참여방법: 사전 예약 없이 현장 참여

국립경주박물관(관장 함순섭)은 ‘문화가 있는 날’ 문화행사로 2023년 3월 29일(수) 오후 6시,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 2층에서 ‘클래식을 만나다: 박물관의 바로크 음악전’을 개최한다.

경주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 공연 그룹인 ‘리나, 리안&아르떼’(김우람 외 5인)가 바흐의 ‘평균율 피아노곡’, ‘바이올린 파르티타’, 체스티의 ‘내 님 주위에서’, 비발디의 ‘세상에 참 평화 없어라’ 등의 바로크 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박물관이라는 공간에서 서양 바로크 시대의 음악을 접하는 것으로 시공간과 형태를 넘어서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클래식을 만나다, 박물관의 바로크 음악전’은 별도의 예약 없이 박물관을 찾는 모든 관람객들이 참여할 수 있다. 공연은 라이브 영상으로 제작되어 추후 국립경주박물관 유튜브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붙임: 공연 포스터 1부. 끝.



공연 포스터